

한국전기연구원 최근 핵심성과 엄선 'KERI 대표기술21선' 발간



김종신 사장,
2009 PM
정기 심포지엄 주관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유태환 www.keri.re.kr)은 최근 10여년간 창출한 우수한 성과와 기술들을 엄선한 'KERI 대표기술21선'을 발간했다.

■ KERI 대표기술 21선 리스트

1. 한국형 배전자동화 시스템(KODAS) 기술
2. 원전용 제어봉 제어시스템 및 원자로 출력제어시스템 기술
3. 전자기 환경평가 및 대책기술
4. 발전기 여자제어시스템 기술
5. 국가 기간시설물 전식대책 기술
6.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부상제어시스템 기술
7. 교류 765kV 송변전설비 상용화 기술
8. 고속 전철 전기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9. 청정 이송시스템 기술
10. 전기 폭발방지에 의한 나노분말 제조기술
11. 전열화학포(ETC)용 고압 펄스전원 기술
12. 조류발전용 계통연계형 MW급 전력변환 기술
13.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투명전도성 필름 제조기술
14. 탄소나노튜브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기술
15. 초전도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저장 기술
16. 고에너지 리튬이차전지 기술
17. 차세대 디지털 3차원 의료 영상진단기기 기술
18. 광대역 고속전력선 통신망 기술
19. 테라헤르츠 기술
20. 피부형광 진단 시스템
21. 초고압 대용량 중전기기 시험평가 기술 KEA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회장인 한국수력원자력 김종신 사장은 10월 8일~9일 이틀동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09 한국프로젝트 경영협회 정기 심포지엄'을 주관했다.

프로젝트경영 심포지엄은 선진 PM(Project Management) 기술 및 연구동향 파악 등 정보교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한수원의 이우방 건설본부장과 정영익 건설처장,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을 비롯한 한전, 한수원, 한기, 두산, 현대, 대우, 대림, 포스코, 삼성 등 국내외 PM 전문가 및 관련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 나라 프로젝트경영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건설분야 대우건설과 제조분야 두산중공업이 제7회 '올해의 프로젝트 대상'을, 포스코건설 김영섭 이사가 제3회 '少南 PM상'을 수상했다. KEA